

# [시론] 남북 접경지역의 농업협력 방향 은

입력 : 2020-12-11 00:00



## 동부·서부 각각 다른 접근법 필요

### '저임금' 아닌 '고부가가치' 초점을

미래의 농업분야 남북협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우선 한반도의 지리학·경제학적 특성을 활용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을 통과하는 교통 인프라 연결을 가정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뛰어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접경지역은 성장의 중심지로 전환될 수 있다. 남과 북 모두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잘 보존된 자연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선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 접경지역의 동부와 서부는 환경적 요인의 차이가 크다. 서부 접경지역은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 즉 한반도의 대동맥이 지나가는 곳이다. 남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광역경제권까지 포함하면 한반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농식품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밀집된 곳이므로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식품 가공·물류 단지를 육성하는 것이 유망하다.

경의선이 지나가는 기존 거점뿐 아니라 남북한을 연결하는 새로운 육상·해상 교통망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과 인접한 강화도·교동도와 황해남도 지방을 잇는 교량이 건설되면 남북협력 농식품 가공·물류 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곳은 해주·개성과 인천·서울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으므로 남북한 수도권의 농식품 교류를 위한 거점으로 적합하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에 호텔·컨벤션 시설이 갖춰지면 농특산물시장을 개설할 수 있고, 남북 문화예술 공연·전시와 접목해 관광명소로도 개발할 수 있다.

동부 접경지역은 서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대부분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산악·해안 지대이므로 생태적 특성을 파괴하지 않고 육성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경원선·동해선 철도와 항만 네트워크가 다시 연결될 경우를 가정해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개발 대상지역을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미 동부 고지대의 특성에 맞춰 광활한 초원이 조성된 '세포'지역에서 대규모 목축업을 진행하거나 '고산'지역에 과실수 재배를 위한 농원을 개발했다. 이같은 환경적 조건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자생하는 약초와 허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남북한 농식품 연구소를 설립하고, 우리 민족의 전통식품과 한약재를 상품화하는 의료·식약품 협업도 생각해볼 수 있다. 스마트팜 기술로 재배환경을 최적화해 약용식물의 약효를 증진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농업혁신을 이루는 데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다.

미래의 남북협력 방식은 북한 노동력의 임금 경쟁력에 의존해선 안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업도 고부가가치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유럽 지중해 주변의 휴양지가 다양한 식품·건강 산업과 접목해 발전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농업을 다른 산업과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름다운 해변과 산악지대의 경관을 배경으로 리조트를 개발하고, 농식품산업과 건강·미용·의료·체육·요양·휴양 산업 등을 연계할 수 있다. 북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농업과 관광을 융합한 세계적인 명소를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상상력으로부터 나온다. 다양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남북한이 함께하는 '한반도 뉴딜'은 농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민경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농민신문사&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